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1호 [루게 제 25109호] 주제 104 (2015)년 11월 27일 (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원산
구두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조용원동지, 한광상동
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하
였다.

지난 1월 당의 하늘
같은 사랑에 떠받들리워
로동자공전으로 전변된
원산구두공장을 돌아
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주
찾아와 인민들에게 안겨
줄 신발생산정형을 알아
보시겠다고 말씀하시
였다.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자나깨나
김정은동지를 모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생산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림으로써
매월 공장앞에 맡겨진 신발생산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특히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여러가지
신발들을 생산하기 위해 도안실을 새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번 공장을 돌아볼
때 신발생산에서 선행공
정인 도안을 잘하는데
각별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도
안실을 잘 꾸리고 여러
가지 신발형태들을 도안
하여 생산에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제단실수율을 높일수 있
게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레이저재단기를
새로 설치한것을 비롯
하여 기술혁신에서도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고
하시였다.

공장에서 2.8비탈론
편합기업소와 평성합성
가죽공장에서 나오는
염화비닐과 합성가죽으
로 구두를 생산하고있
는데 우리의것을 가지고

우리고 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과
합심하여 창안한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도입하였으며 설비현대화사업도 줄기차게
밀고나감으로써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혁소개
실과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발전포정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주의깊게
보시면서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
시고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원산구두공장에도 뜨겁게
어려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구두
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찾아오시었던 잊을수
없는 공장이라고 다시금 되뇌이시면서
생산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명도업적을 길이 빛내여
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만든 신발들을 보니 정말 기쁘다고 말씀
하시였다.

공장에서 만든 구두의 형태도 다양하고
맵시있을뿐만아니라 가볍다고 하시면서
신발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
화를 실현하고 견고성을 보장할때 대한
당의 방침판철에서도 성과를 달성하였
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잘 꾸린
것만큼 종업원들속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그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
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맡은 일을 더
잘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도안실, 사출작업반,
등 여러곳을 돌아
보시면서 생산정형과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구두공
장에서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 계절과
년령심리적특성은 물론 계절에 따르는
신발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말씀하
시였다.

원산구두공장에서는 <대보산>상표용
단 구두의 질을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신발도안현상모집을 실속있게 벌리고 제
품품평회를 정상적으로 엄격히 할때 대한
문제, 제화공정에 새로운 선진기술을 받아
들일때 대한 문제, 우리의 힘과 기술로
국산화된 집착제를 개발할때 대한 문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
고 신발생산과 관련한 추세를 더 잘 알수
있도록 과학기술보급사업을 짜고들때
대한 문제 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구두공장에 예고없이 찾아왔는데 공장이 팡팡 돌아가고있다고 하시면서 자신에게는 공장안에 차넘치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소리가 우리 로동계급들이 만든 질 좋은 신발들을 받아안고 좋아하는 인민들의 웃음소리로 들린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계속혁신, 계속전진해가고있는 원산구두공장을 돌아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인민

생활향상을 위한 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하자는것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바라시던 념원이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구두공장의 전경을 보시며 종업원들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공장, 안팎으로 흠잡을데가 없는 만점짜리 공장을 정상유지하기 위해 작업의 실참에도 일터를 정성다해 관리하고있다는데 그래서인지 지난 1월에 돌아볼 때보다 공장환경이 더 밝아진것만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공장의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사회주의명문국의 체모에 맞게 확립하면 자기 일터에 대한 종업원들의 애착심은 절로 높아지게 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구두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령도업적단위답게, 경공업부문 현대화의 기치를 남먼저 든 공장답게 생산도 잘하고 꾸리기사업도 잘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따라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구두공장이 우리 나라 신발공업발전을 추동하는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공장의 종업원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해갈 대대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모든것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어야 한다는것이 당의 요구라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는 담력과 배짱

을 안고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원산구두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속에서 공장을 또다시 찾아주시고 인민사랑의 불멸의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기어이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전당에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기풍이 더욱 뜨겁게 차넘치게 하자

목표는 인민의 요구, 실천은 불같은 헌신

최근 조선군에서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고있다. 조선청년2호발전소에 이어 조선청년3호발전소가 훌륭하게 건설되었으며 내놓고 자랑할만한 관공제육관이 짧은 기간에 보란듯이 일어났다.

지방산업공장의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농촌마을에 수십종의 살림집들이 일며 있다.

조선군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들은 군당위원회일군들이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비상한 부무관점을 지니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꿰뚫어 보기 위한 투쟁을 통해 크고 완강하게 벌인 결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일군들이 수령님식, 장군님식 인민관을 지니고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내세우며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해서 인민을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참된 인민의 충복이 되어야 한다.»**

군당위원회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인민의 요구와 리상을 철저히 실현하는 원칙에서 전투목표를 높이 내세우고 모든 사업을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조직진행한다는 점이다.

군에서 조선청년3호발전소건설문제에 상징되었을 때

였다. 일부 일군들에서 발전소건설을 한두해라도 미루는것이 어렵겠는가 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군사제도의 힘으로 발전소를 건설하는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잘 알고있는 그들이었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조선청년1호발전소에 이어 조선청년2호발전소까지 일떠세웠는데 편이 발전소를 또 건설하자고 하니 너무나도 아릅답던것이다.

더우기 포도출공장, 직물공장, 화학공장을 비롯한 지방산업공장의 현대화실현, 수십종의 살림집건설을 비롯하여 이터세운 전투목표도 방해하였던것이였다.

하지만 군당책임비서 리택호 동무의 결심은 확고하였다. 물론 조건에 비해 목표는 방대하다. 지금 인민들이 제일 바라는것이 전기문제이다. 인민이 바라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군당책임일군의 말은 일군들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이렇게 되어 조선청년3호발전소건설이 전투목표에 반영되게 되었다.

조선청년2호발전소건설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전개된 조선청년3호발전소건설은 말그대로 결사전이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여러 대생건설이 동시에 진행되는 조건에 맞게 강승판동무를 비롯한 군당일군들이 한개 대상씩 맡고 시작부터 일단을 통해 크게 벌려두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군당책임비서를 비롯한 당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서서 전진하는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된 청년들이 돌격대를 모으고 물결을 일으키고 나섰으며 맹렬한 돌격대기발을 휘날리며 발전소건설을 일떠세웠다.

당장전 일흔들을 맞으며 훌륭하게 일떠세운 조선청년3호발전소건설과정은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각오로 목표를 높이 세우고 이 악하게 투쟁할 때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결심을 굳혀나갔고, 새가 없다는 전리를 일군들에게 더욱 깊이 새겨주었었다.

군당책임일군의 말은 일군들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이렇게 되어 조선청년3호발전소건설이 전투목표에 반영되게 되었다. 한편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군당책임일군의 말은 일군들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이렇게 되어 조선청년3호발전소건설이 전투목표에 반영되게 되었다. 한편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때 일부 일군들은 그 설계를 산골꾼의 특성과 조건을 논하면서 매우 소극적으로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군당책임일군은 협의회를 열었다. 계획관건설문에는 단순한 실무적문제도 아니다. 우리 인민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기 하려는 경여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순고한 뜻을 실현하는 매우 중요하고 책임적인 사업이다. 인민의 이익과 편의를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설계를 다시 하자.

군당책임일군의 말은 일군들과 설계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설계가 다시 진행되고 여러 종류의 체육기는 물론 집단체조와 예술공연도 할 수 있는 체육관에 식당과 청량음료점, 목욕탕, 전수대기실 등 봉사시설까지 그 흔치 않거게 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세마디나 옷장, 이불장, 찬장, 텔레비전수상기, 태양빛전지판 등이 갖추어져 메란가소 화까지 실현된 안천리의 수상품의 새 살림집을 돌아보던 군당책임일군이 실내에는 창고가 있는데 의하여는 넓은것을 발전하고 농장원들의 편의를 위해 야외차고를 짓게 한 사실을 비롯

하여 군당일군들의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기풍에 대한 이야기는 군의 그 어느 곳에 가나 들을수 있다.

의진 산골꾼에서도 국가당을 통하여 인민대학습당의 자료를 열람하며 최신과학기술을 습득하는 학생들과 기술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아도, 자기의 이름이 쓰여진 용기를 기초식품을 담아가고 용수철문을 나서는 녀인들의 웃음소리를 들어보아도 군당일군들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 부무정신을 느낄수 있다.

당장전 일흔들을 맞으며 내세웠던 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한 군당위원회에서는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또다시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발전소건설에서 전기생산을 늘어 읍지수 살림집의 전기난방화를 실현하고 지방산업공장에서 생산을 활성화하며 현대적인 강능기가공기술을 일떠세우는 등 그들이 내세운 목표는 대단히 높다.

각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조선군당위원회 일군들처럼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인민의 요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힘이 크게 작용하고 사업을 조직진행해오며 눈 나라는 로동당면담소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승표

어떻게 만질을 지게 되었는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조선군당위원회의 전투목표는 참으로 방대하다. 그야말로 군의 모든 일군들이 만질을 쳤다고 말할수 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당을 진심으로 떠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일대로 소중히 간직할것이며 용감하고 승리 기쁨을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질을 지고 가시밭도 헤쳐며 미끄러운 모든것을 달려갈것입니다.»

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성공과로 맞이하기 위한 만질을 지는 것은 군당위원회 전원의 확대회의가 있기 며칠전이었다. 그날 단원들이 나갔다가 밤이 깊어 갔어 사무실에서 돌아와 당 제7차대회를 계기로 새롭게 전개할 사업내용들을 밝힌 자료를 본 군당책임비서 김도명동

무의 마음은 개운치 못했다. 령도업적단위들을 본보기로 하여 군의 영농사업에서 비약을 일으키는 문제, 지방산업공장에서 생산을 활성화하는 문제, 농민휴양소와 살림집들을 새로 건설하는 문제.

그러나 군의 모든 일군들이 생활향상과 직결된것이였다. 그것은 모두 목표에 반영하여 해결한다는것도 보물일기 아니었다. 하지만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성공과로 맞이할 때 현 세 작성한 전투목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것이였다. 그날 오전엔 목격한 일이 떠올랐다. 어린 학생들이 정경들을 더더 강을 건너가는 광경을 보고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다리로 건너가자면 몇백mm를 예를아가야 하기때문에 그한다고 말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물이 붙어있으면 할수없이 다리가 붙어 곳으로 멀리 예를아 다닌다고 덧붙이는것이였다.

그들은 범상치 않게 말했지만 책임일군은 그것을 자기에 대한 비판으로 무겁게 받아들였다. 이것은 결코 스치치 못할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데 자료에는 그런 문제가 올라있지 않았다. 책임일군은 여기에 하나씩 문제를 포착했다.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였다

서구공공건설사업소 초급당위원회에서

어우어 그들이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며 자기 조소에서 맡은 임무를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른날 협의회에서 초급당비서는 학습을 학습생들의 따뜻한 보급자리로 머물러있게 개간하지 않는 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일부 일군들은 신드 호흐뵤트 사하였다. 당장전 일흔들을 맞으며 내세웠던 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한 군당위원회에서는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또다시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발전소건설에서 전기생산을 늘어 읍지수 살림집의 전기난방화를 실현하고 지방산업공장에서 생산을 활성화하며 현대적인 강능기가공기술을 일떠세우는 등 그들이 내세운 목표는 대단히 높다.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청년들을 위한 마음

개천판광지구를 감동아 흐르는 강기슭의 경치좋은 곳에 청년들대원들을 위한 사랑의 집이 일떠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지난 2월 석탄전선으로 진출한 10여명의 청년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길영초청년들대원이 되어 석탄생산을 위한 투쟁에 뛰어들었다. 대량조직에서는 청년들대원들을 위한 학습을 빠른 기간에 건설할 목표를 내세우고 강력한 령부하로 건설동태를 조직하도록 하였으며 립방의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학습건설을 도와나서도록 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린방의 당 및 행정일군들은 청년들대원들을 위한 사랑의 집이 일떠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지난 2월 석탄전선으로 진출한 10여명의 청년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길영초청년들대원이 되어 석탄생산을 위한 투쟁에 뛰어들었다. 대량조직에서는 청년들대원들을 위한 학습을 빠른 기간에 건설할 목표를 내세우고 강력한 령부하로 건설동태를 조직하도록 하였으며 립방의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학습건설을 도와나서도록 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린방의 당 및 행정일군들은 청년들대원들을 위한 사랑의 집이 일떠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지난 2월 석탄전선으로 진출한 10여명의 청년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길영초청년들대원이 되어 석탄생산을 위한 투쟁에 뛰어들었다. 대량조직에서는 청년들대원들을 위한 학습을 빠른 기간에 건설할 목표를 내세우고 강력한 령부하로 건설동태를 조직하도록 하였으며 립방의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학습건설을 도와나서도록 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린방의 당 및 행정일군들은 청년들대원들을 위한 사랑의 집이 일떠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지난 2월 석탄전선으로 진출한 10여명의 청년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길영초청년들대원이 되어 석탄생산을 위한 투쟁에 뛰어들었다. 대량조직에서는 청년들대원들을 위한 학습을 빠른 기간에 건설할 목표를 내세우고 강력한 령부하로 건설동태를 조직하도록 하였으며 립방의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학습건설을 도와나서도록 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린방의 당 및 행정일군들은 청년들대원들을 위한 사랑의 집이 일떠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지난 2월 석탄전선으로 진출한 10여명의 청년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길영초청년들대원이 되어 석탄생산을 위한 투쟁에 뛰어들었다. 대량조직에서는 청년들대원들을 위한 학습을 빠른 기간에 건설할 목표를 내세우고 강력한 령부하로 건설동태를 조직하도록 하였으며 립방의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학습건설을 도와나서도록 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린방의 당 및 행정일군들은 청년들대원들을 위한 사랑의 집이 일떠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지난 2월 석탄전선으로 진출한 10여명의 청년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길영초청년들대원이 되어 석탄생산을 위한 투쟁에 뛰어들었다. 대량조직에서는 청년들대원들을 위한 학습을 빠른 기간에 건설할 목표를 내세우고 강력한 령부하로 건설동태를 조직하도록 하였으며 립방의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학습건설을 도와나서도록 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린방의 당 및 행정일군들은 청년들대원들을 위한 사랑의 집이 일떠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지난 2월 석탄전선으로 진출한 10여명의 청년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길영초청년들대원이 되어 석탄생산을 위한 투쟁에 뛰어들었다. 대량조직에서는 청년들대원들을 위한 학습을 빠른 기간에 건설할 목표를 내세우고 강력한 령부하로 건설동태를 조직하도록 하였으며 립방의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학습건설을 도와나서도록 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린방의 당 및 행정일군들은 청년들대원들을 위한 사랑의 집이 일떠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지난 2월 석탄전선으로 진출한 10여명의 청년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길영초청년들대원이 되어 석탄생산을 위한 투쟁에 뛰어들었다. 대량조직에서는 청년들대원들을 위한 학습을 빠른 기간에 건설할 목표를 내세우고 강력한 령부하로 건설동태를 조직하도록 하였으며 립방의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학습건설을 도와나서도록 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린방의 당 및 행정일군들은 청년들대원들을 위한 사랑의 집이 일떠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지난 2월 석탄전선으로 진출한 10여명의 청년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길영초청년들대원이 되어 석탄생산을 위한 투쟁에 뛰어들었다. 대량조직에서는 청년들대원들을 위한 학습을 빠른 기간에 건설할 목표를 내세우고 강력한 령부하로 건설동태를 조직하도록 하였으며 립방의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학습건설을 도와나서도록 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행복의 밑거름

안악군 안악농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

행복을 명심하자. 마디마디 뜨거운 정이 넘쳐흐르는 초급당비서의 말은 일군들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이렇게 되어 2층으로 된 인민병원건설계획도면이 완성되게 되었다. 병원건설이 시작되자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은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물과 열, 목재, 세멘트를 구하느라 신발창이 뚫도록 뛰고 또 뛰었다.

농업근로자들을 위해 아글라 글 애스는 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병원건설은 물론 치료와 병원관리에도 필요한 물을 보장하는 우물과기공사까지 끝나는 훌륭한 성과를 이룩되었다. 병원건설과정은 일군들에게 농업근로자들을 위한 고생을 띠오 더하고 이악하게 노력할 때 그들의 행복이 커진다는 진리를 깊이 새겨주었다.

물론 농장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하는 동무의 심정은 이해된다. 하지만 농업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하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시 제시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라는 구호는 오늘 우리 일군들이 들고나가지야 할 애국의 구호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시 제시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라는 구호는 오늘 우리 일군들이 들고나가지야 할 애국의 구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오룡천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친다

경원군에서

이들은 배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일떠세운 청년들의 투쟁기를 본받아 발전소건설에서 자기 말을 분분히 다해나가고 있다. 이들은 짧은 기간에 언제기 초공사를 끝낸 기세로 막대한 양의 골재를 마련하면서 지난 두달동안에만도 수십만mm의 연제양기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연제총공량의 80%계선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군의 농업근로자들과 녀맹원들도 건설장에 달려나갔고 많은 량의 연제양기를 진행하였다. 발전소건설자들은 발전기설공사와 예수로공사도 동시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 4. 26만화영화촬영소를 현지지도하신 1돐 기념보고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문학예술부에서는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와 더불어는 현실이 발맞추어 사상예술성이 높고 사명감이 심금을 울리는 시대적명작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합니다.»**

보고자는 전체 일군들과 창작자, 예술인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순고한 의도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명작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통해 이 크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교육도서출판사창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교육도서출판사창립 70돐 기념보고회가 25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영태동지와 출판사일군들, 기자, 편집인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교육도서출판사 기자, 편집인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최태복동지가 전달하였다.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세계민화영화의 발전동향과 추세

세계민화영화의 발전동향과 추세를 제때에 알수 있게 자료연구지와 과학기술보급실을 더 잘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창작자들이 창작에 전념할수 있는 조건들을 원만한 보장해나갈것이다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대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성공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강승국건설에 떨친 신력 우리 큰대와 인민의 청신력을 총괄판사키는 명작목으로 당의 신권혁명명도명 추종자를 받아들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향우회

본사기자 리정수

향우회에서는 사자경 제행주 필현광명의 기념보고에 이어 주필 최희준, 부장 엄창국, 편집인 손수욱이 토론하였다.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이것이 바로 앞날의 문제점이 되었다. 그래서 장교들과 당일군들이 힘을 합쳐 인민이 바라던바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질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한다. 다시한번 신념을 조이고 달려보자.

평화적환경의 마련은 절박한 민족사적과제

올해 북남관계개신과 조국통일에 대한 열의의 기대와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 높았다. 우리 겨레 누구나 조국해방 일흔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 마지 않았다.

하지만 이해의 마지막달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까지도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은 여전히 해빙기 전진발발의 위험도 가지지 않고있다. 무엇보다도, 그에 대한 대답은 용당 남조선에서 정초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온 광범적인 전쟁준비행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 온 겨레는 남조선에서 외세의 야합만에 감행되고있는 북침전쟁도발행동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의 안정적발전과 내외 결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뼈저리게 새겨야 할 것이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북남관계의 전도와 관련되는 사활적문제이다.

외세의 의해 반세기여 년도록 전쟁위험을 강요당하고있는 우리 민족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갈망하고있다. 더우기 우리 민족은 이미 지난세기 50년대에 외세의 강요에 의해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았던 안락였다. 그 상층은 수십년래에 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서 지워지지 않고있다. 우리 겨레 누구나 동족끼리 대결하고 피흘리는것을 원치 않는다.

조선민족에서 새 전쟁이 일어나면 그 피해를 입는것은 다른아닌 우리 민족이다. 평화만이 우리 민족에게 통일과

부강번영을 가져다줄수 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며 의지이다.

우리는 정초에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함께 벌리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행동을 그만두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발걸음을 돌릴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파격적인 조치도 취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청산하려는 확고한 의지의 발현이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평화적환경보장을 위한 우리의 소고한 애국적조치에도 불구하고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강화하였다.

남조선호전파들이 미국과 함께 벌려놓은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북남관계개신의 분위기를 파괴하였으며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의 위험을 질게 몰아갔다.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함께 벌려놓은 대규모적인 군사적위협이며 침략기도의 뚜렷한 발로이다.

현재 조선반도에서는 전쟁의 총포성이 울려지고있을뿐 군사적대결상태는 세계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첨예하다. 따라서 전쟁이 임의의 시각에 일어날수 있는 위험은 항상있고 존재한다.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벌여지는 대규모의 전쟁연습은 가족이나 친척한 정세 순간에 폭발시킬수 있는 위험한 요인이다. 조선반도에서 군사분계선사이에 두고 방대한 무력이 서로 날카롭게 대치되어있는 속에 합동군사연습을 끊임

없이 감행하는것은 화약고였에서 불장난을 하는것과 같은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이 조선민족의 운명은 انسان에도 없이 자국의 침략적리익을 위해 대조선적대정책에 악랄하게 매달리며 북침전쟁도발을 피하는 미국과 공모격략하는것은 용납 못할 민족반역행위이다.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전쟁연습이 계속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감정이 해소될수 없고 관계개신의 길이 열릴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상대방이 칼을 빼들고 도발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끊임없이 벌리는것은 어떻게 화해와 단합이 이루어질수 있고 협력과 교류를 마음편히 추진할수 있는가. 극렬한 북남관계개신도 그것을 말해준다.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함께 감행하는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신의 길에 가로놓인 엄청난 장애물이다.

올해에도 남조선호전파들은 그 무슨 《방어》와 《도발억제》의 간판 밑에 미제침략군과 함께 각종 대규모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을 광범적으로 벌여왔다. 《키 리콜브》, 《두스리》, 《을지프리대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내외호전세력이 끊임없이 감행한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은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신의 분위기를 심히 흐려놓았다.

지난 8월의 북남합의이후에도 남조선당국은 《2015 통합화력력합출연》이니, 미핵항공모함과의 연합훈련시동훈련이니 하는것들을 편이하여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대화와 협력의 길을 짓밟아버렸다.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침략기도를

버리지 않으면서 외세를 등에 업고 우리와 한사코 맞서보고 피를 물고 남침하는 남조선군부불합당들의 호전적대동이야말로 북남관계개신의 커다란 장애물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것은 절박한 민족사적과제이다.

북과 남이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겨레의 이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자면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함께 감행하는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

우리는 북남관계개신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행위로 대결과 긴장을 조성하여 북침전쟁행동에 광분하는 도발자들은 추호도 용납치 않는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며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도발과 침략행동에도 단호히 대응할것이며 무지비한 징벌을 가할것이다.

남조선에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은 중지되어야 하며 조선반도에는 항구적인 평화가 깃들어야 한다. 북침합동군사연습이 감행될 때마다 북남관계가 모진 시련을 겪고 조선반도정세가 핵전쟁발발의 최극단으로 치달곤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속에 품은 대결과 전쟁의 칼을 버리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방향전환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해내의 전체 조선민족은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사망없이 떨쳐나설수있도록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아침을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할것이다.

심철영

군중분야를 포괄하고있으며 전례없는 규모에서 광범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신에 대한 온 겨레의 기대와 희망이 그 어느때보다 높을 시기에 남조선당국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하여 벌려놓은것은 무분별한 무력증강소동은 과연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이 외세와 결탁하여 위협천만한 무력증강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끝수에 배긴 북침야망의 뚜렷한 발로이다.

무력증강은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주되는 요인이다.

남조선당국이 대화상대방을 자극하는 무력증강행동에 계속 주입하고있다. 그것은 불안정상태에 놓여있는 조선반도정세를 또다시 전쟁경계로 몰아가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이 감행하고 있는 도발적인 북침무력증강행동은 그들이 떠벌이는 북남사이의 《관계개신》이라는것이 한갓 기만에 불과하다는것을 림중해 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성호

남조선집권자가 또다시 해외행각을 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우리를 반대하는 핵공조구걸을음으로 어저럽혔다. 그는 14일부터 23일까지 20개국 및 지역수뇌자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 수뇌자회의 등 국제회의가 열리는 해외의 여거지를 치마에서 피고소리가 날 정도로 돌아다녔다. 그러면서 내뱉은 수작은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오기를 기대》한다니, 《북이 핵포기는 전략적결정》을 내리고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해라 한다니 하는 그 야말로 터무니없고 고리타분한 망발이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남조선집권자의 이번 해외행각은 저들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하나 정당화하면서 외세의 반공화국핵공조를 일층 강화하여 벌려놓은 《신핵포기》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무추하기 짝이 없는 구절행각, 헛소리라는 대결행각이었다.

남조선집권자가 해외를 제 집 안방 드나들듯 변질나게 싸다니며 외세의 바지가쟁이를 불고고 반공화국핵공조를 비력질하고있는것은 별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듯 집요하게 《북핵위협》이니, 《북핵포기》니 하고 부르짖고있는것은 참으로 망신스러운 노릇이 아닐수 없다. 그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천명파리의 꼬페대장은 너무나도.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발생의 근원과 비핵화의 기거지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자위적행위무에 대하여 시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우리의 핵무력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것이다.

내외가 공인하고있는바 같이 우리의 핵무력은 날로 로폭화되고있는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으로부터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나라의 자주권을 북동아시아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보검이다. 만약 우리가 자위적인 핵역력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그런것은 열백번 일어나고도 남았을것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해마다 벌려놓는 광범적인 북침전쟁연습들이 실전에 번져지지 않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침략세력의 그 어떤 군사적도발도 단호히 거부수 있는 강력한 전쟁억력있기 때문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집권자가 외세의 호자락을 불고고 《북핵위협》이니, 《북핵포기》니 하고 악행을 부른것은 초보적인 리성도 없고 한지않도

나타낼 줄 모르는 실로 미련한 처사에 불과하다.

우리 민족사는 강한 국력이 있어야 나라의 민족의 존엄도 강성번영도 있다는 철의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더우기 제국주의세력의 군사적강압과 전횡이 절정에 달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강한 국력을 없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해 혼란을 없다. 강위력한 핵역력에 토대하여서만 우리 겨레는 외세의 침략행동을 물리쳐 자기들의 자주적요구를 리খে 따라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우리의 핵역력적야말로 통일조국의 통일번영을 영원히 담보하는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부이다. 이것을 함부로 절고하고 야단치며 외세에게 반공화국핵공조와 동족합종을 청탁하는것이야말로 민족의 수치가고 망신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집권자는 《북핵포기》를 떠들기 전에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의 핵위협소동에 적극 편승하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핵전쟁위험을 고조시켜온 저들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나 돌이켜보아야 한다.

이번에 남조선집권자가 국제회의성격도 대상도 가지지 않고 외세에게 《북핵공조》강화를 애러게 구걸한것은 내외의 비합과 조소만 자아낸다. 그것은 반공화국핵공조제공제가 거덜이 나고 핵을 추지 못하는 반면에 우리의 핵역력이 더욱 강화되는데 비비판의 단말마적발달일뿐이다.

제 벼룩 개 못 준다라는 말이 있다. 언제 봐야 게기때마다 북남관계를 들추어놓는 남조선집권자의 짧은 혀와 경망소리는 행동이 문제이다. 그가 외세에게 바짝 매달리며 동족합종을 위한 반공화국핵공조를 애걸할수록 북남관계는 파국에 빠지고 대결과 긴장은 고조되게 된다.

남조선집권자는 수치를 건질줄 알아야 하며 자기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북남관계에 파란을 몰아가는 퇴판이 될수 있다는데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의 자위적억력력은 그 어떤 흥정물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과 북침전쟁위협이 존재하는 한 자위적억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며 그에 갈피 제동을 걸려는 그 어떤 적대행위에도 단호히 대응할것이다.

남조선집권자는 이것을 새겨들어야 한다.

조 남수

《대화》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전쟁 연습 소동

현제 남조선군은 공군 사용하고있는 《KF-16》 전투기를 대신할 다음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명목에 북침 공격능력강화를 꾀하며 미국과 결탁하여 그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 각계가 군사적 측면으로 보나 재정적 측면으로 보나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것이외로 비난하면서 강력히 반대하고있지만 집권자까지 나서서 다음세대 전투기개발을 강압적으로 추진시키고있다.

남조선의 군부호전파들은 2025년에 첫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겠다고 핑기를 뿌리면서 여기에 18조원이라는 막대한 액수의 자금을 낭진할것을 계획

하고있다.

남조선호전파들은 《북기계화 부대들의 위협》을 운운하며 《렐파이어》미사일생산계획도 적극 추진하고있다.

한편 남조선당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최신주비엔도 열을 올리고있다.

열마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라하는것을 벌려놓은 남조선호전파들은 구축함들에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정체를 설치하기

로 하고 그를 위해 막대한 액수의 자금을 쏟아붓기로 하였다.

남조선군부가 미국으로부터 끌어들이는 《하푼》미사일을 잠수함에 도입하기로 하고 그를 추진시키고있는것도 스쳐지날 수 없는 문제이다.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열마진 미국방성은 남조선당국의 요구에 따라 2027의 《하푼》미사일을 남조선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남조선호전파들은 이 미사일을 잠수함에 실고 우리 공화국의 해상과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려 하고있다.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북침 무력증강행동은 특히 공군의 각

각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있다.

남조선호전파들은 그 무슨 《방어》와 《도발억제》의 간판 밑에 미제침략군과 함께 각종 대규모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을 광범적으로 벌여왔다. 《키 리콜브》, 《두스리》, 《을지프리대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내외호전세력이 끊임없이 감행한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은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신의 분위기를 심히 흐려놓았다.

지난 8월의 북남합의이후에도 남조선당국은 《2015 통합화력력합출연》이니, 미핵항공모함과의 연합훈련시동훈련이니 하는것들을 편이하여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대화와 협력의 길을 짓밟아버렸다.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침략기도를

116개 단체를 시국선언문 발표

남조선인테레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전국 농민총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농민회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한 116개 시민사회단체가 19일 서울에서 민족총합기투쟁에 대한 파업결의에 관하여 진담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14일 있었던 민주총합기투쟁때 경찰이 물대포를

폭력행위를 용납하면 민주와 민생이 짓밟힌다

폭압 《정권》의 야수적만행을 단죄하라

남조선 각계층에서 보수당국이 지난 14일 수많은 경찰 무력을 내몰아 민족총합기투쟁을 한사코 외면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폭력을 휘두르는 파쇼경찰은 반드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는 20일 민중을 적대시하는 《정권》이 민중에 의해 퇴진당하는것은 력사의 필연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단체는 성명에서 당국이 노동자층에게는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며 언제든 해고될수 있는 위험을 안고있고 농민들에게는 밭을 내서 농사를 짓게 하는 한편 민민들에게는 삶을 위한 사고그만 퇴향조치 허용하지 않았고있다고 하면서 바로 그렇기때문에 사람

들의 얼굴에는 주름만 더 깊어지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인원이 유린되고 총 쏘여진 사람들을 감행한대 해 단죄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지금 남조선에서 민주주의는 말살되고 독재와 파시즘이 살판친것이라고 개탄하면서 민주총합기투쟁에 나서서 지지했다.

단체는 민중을 탄압하는 《정권》은 민중의 심판을 받기만이라고 하면서 력대로 반민중적이며 반민주적인 《정권》들의 통을 계기로 사회전반에 무시무시한 폭압정국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14일 있었던 민주총합기투쟁때 경찰이 물대포를

제5차 전국술, 기초식품 및 어린이 식료품 전시회 진행

제5차 전국술, 기초식품 및 어린이 식료품 전시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현행생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마음껏 오신 유래한 수형님들의 유순과 강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의 승화한 뜻을 높이 받들고 식료품부문의 수많은 단위에서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식료품의 질을 한단계 높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전시회장은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서 내놓은 어린이 식료품과 술과 간장, 된장, 기름이 출품되었다.

26일에 있는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단위들에 해당하는 상장이 수여되었다.

어린이 식료품부문의 평양 어린이 식료품공장, 술부문의 대동강기공공장과 강계도소공장이, 기초식품부문의 평양기초식품공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영철 시료일용공업상이 폐막사를 하였다.

그는 모든 참가자들이 조선

어제 날의 련대장은 오늘도 정보로 걸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당원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칠것을 결심하고 짓건하야 당에 들어오는 자각적인 혁명투사들입니다.》

오늘 우리 당원들은 드넓은 자국을 안고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을 힘차게 벌려나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어제날의 인민군대 련대장이었던 봉화화공장 부지배인 전덕준동무의 당생활을 통해서도 찾아보게 된다.

지난 9월 중순 어느날 전덕준동무의 방으로 찾아온 공당신동작업반 통제원 박옥희동무는 높은 보타리를 책상우에 올려놓고 급히 물어내었다.

보자기에는 윤기도는 발달들과 갈갈들이 수북이 들어있었다.

《부끄러우게 말했다.》

《우리가 심는 나무들에서 만 첫 열매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순간 전덕준동무는 저도모르게 오른손을 인종굴리기로 가져갔다. 당원들이 손굴에 당으며 가슴이 찌릿해졌다.

그에게는 어려운 때나 기쁨 때나 가슴에 품은 당원증을 만져보는 습관이 있었다. 근 40년간 당생활을 하는 과정에 생겨난 습관이었다.

어렵고 힘들 때 당원증을 만져 보면 힘과 용기가 솟구치고 기쁨 때 만져보면 조선로동당의 긍지와 자부심이 온몸에

들려져 선 인민군대지휘관의 자세로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내외의 앞장에서 내달리다 하였다.

하루사업을 스스로 총화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 다음날에는 꼭꼭 실천하고 당조직을 찾아가 사업정형을 보고하곤 하는 그는 속시 자그마한 겸허이 나타나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이런 자각적인 당생활기공을 발휘하며 그는 작업원들과 함께 10년동안 공장구내에 수삼 나무, 황룡루, 은행나무, 잣나무 등 1만 2천여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수목화, 원림화를 훌륭히 실현하였으며 200여정도의 당당원지에는 공장종업원들과 힘을 합쳐 100여정도의 잣나무림, 30여정도의 창성이 갈나무림 그리고 수유나무림, 왕버나무림, 맨나무림을 조성하였다.

그는 양묘장에서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키워 해마다 만경대혁명사적지에 50여그루씩 보내주었고 도안의 혁명사적지들과 중요대상전설장, 협동농장과 공장, 기업소, 학교에도 수만그루의 나무모를 키워 보내주었다.

당원증을 가슴에 품고 어려울 때나 그것을 만져보며 어느날의 인민군대 련대장시절처럼 변함없이 한분새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 모든것을 다 바쳐가며 당생활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전덕준동무는 오늘도 오직 정보로만 걸고있다.

본사기자 리종석

봉화화공장 부지배인 전덕준동무

그의 심장을 세차게 뿔뿔하게 하였다.

그는 공장구내를 구석구석 살피보며 양묘장을 넓힐 장소를 찾아보았다.

마침내 풀데와 갈데들이 무성한 빈땅을 찾아냈다. 풀데와 갈대를 확보하니 온몸 두성이었다. 하지만 그는 귀중한 보물을 얻은듯 한 심정이였다.

그는 다음날 당조직을 찾아갔다.

버림받고있는 땅에 양묘장을 꾸리겠다는 그의 결심을 당조직은 적극 지지해주었다.

열마만한 로력이 필요한가를 묻는 일군에게 그는 대어섯있으면 된다라고 대답하였다.

사실 많은 로력이 필요하였지만 로력이 긴장한 때에 그렇게 모를이 수급이 없다고 그였었다.

이렇게 되어 리성준, 백영준, 리영애, 박옥희, 신정남, 한광철 동무들이 그와 함께 양묘장을 꾸리는 사업에 달려붙었다.

곧 양묘장을 꾸리기 위한 힘겨운 전투가 진행되었다. 순어는 물집이 생기고 그것이 터져 피가 흘렀다.

그러나 신목작업반의 첫 개척자들은 전덕준동무의 완강한 군인기질에 이끌려 한치한치 땅을 일구어나갔다.

양묘장을 꾸려나가는 나날에 리영애동무가 병으로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가슴아픈 일도 겪어야 하였다.

전덕준동무는 낮에는 양묘장

로 동당 제7대대회를 우리 당 력사에 특기할 혁명의 최전성기로 맞이할때 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식료품 생산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고 인민생활향상을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시회기간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후대사랑에 의하여 우리 식현대의 본보기공장으로 전변된 평양어린이 식료품공장을 비롯한 식료품의 본보기 공장들에 대한 참관과 과학기술 강습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팽범기동지와 계획남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계영삼 농업과학원 원장, 관계부 및 인준들, 각지 원림내 연구 부 및 생산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관리공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리철만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이 폐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7대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을 힘차게 벌려나갈때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시기에 모든 과학기술공파로들을 서로 하고 생산에 발이하는 과정에 쌓은 경험들을 교환하였다.

폐막식이 26일 농업과학원 평양남대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팽범기동지와 계획남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계영삼 농업과학원 원장, 관계부 및 인준들, 각지 원림내 연구 부 및 생산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관리공들이 여기에

어제 날의 련대장은 오늘도 정보로 걸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당원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칠것을 결심하고 짓건하야 당에 들어오는 자각적인 혁명투사들입니다.》

오늘 우리 당원들은 드넓은 자국을 안고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을 힘차게 벌려나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어제날의 인민군대 련대장이었던 봉화화공장 부지배인 전덕준동무의 당생활을 통해서도 찾아보게 된다.

지난 9월 중순 어느날 전덕준동무의 방으로 찾아온 공당신동작업반 통제원 박옥희동무는 높은 보타리를 책상우에 올려놓고 급히 물어내었다.

보자기에는 윤기도는 발달들과 갈갈들이 수북이 들어있었다.

《부끄러우게 말했다.》

《우리가 심는 나무들에서 만 첫 열매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순간 전덕준동무는 저도모르게 오른손을 인종굴리기로 가져갔다. 당원들이 손굴에 당으며 가슴이 찌릿해졌다.

그에게는 어려운 때나 기쁨 때나 가슴에 품은 당원증을 만져보는 습관이 있었다. 근 40년간 당생활을 하는 과정에 생겨난 습관이었다.

어렵고 힘들 때 당원증을 만져 보면 힘과 용기가 솟구치고 기쁨 때 만져보면 조선로동당의 긍지와 자부심이 온몸에

어제 날의 련대장은 오늘도 정보로 걸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당원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칠것을 결심하고 짓건하야 당에 들어오는 자각적인 혁명투사들입니다.》

오늘 우리 당원들은 드넓은 자국을 안고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을 힘차게 벌려나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어제날의 인민군대 련대장이었던 봉화화공장 부지배인 전덕준동무의 당생활을 통해서도 찾아보게 된다.

지난 9월 중순 어느날 전덕준동무의 방으로 찾아온 공당신동작업반 통제원 박옥희동무는 높은 보타리를 책상우에 올려놓고 급히 물어내었다.

보자기에는 윤기도는 발달들과 갈갈들이 수북이 들어있었다.

《부끄러우게 말했다.》

《우리가 심는 나무들에서 만 첫 열매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순간 전덕준동무는 저도모르게 오른손을 인종굴리기로 가져갔다. 당원들이 손굴에 당으며 가슴이 찌릿해졌다.

그에게는 어려운 때나 기쁨 때나 가슴에 품은 당원증을 만져보는 습관이 있었다. 근 40년간 당생활을 하는 과정에 생겨난 습관이었다.

어렵고 힘들 때 당원증을 만져 보면 힘과 용기가 솟구치고 기쁨 때 만져보면 조선로동당의 긍지와 자부심이 온몸에

어제 날의 련대장은 오늘도 정보로 걸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당원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칠것을 결심하고 짓건하야 당에 들어오는 자각적인 혁명투사들입니다.》

오늘 우리 당원들은 드넓은 자국을 안고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을 힘차게 벌려나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어제날의 인민군대 련대장이었던 봉화화공장 부지배인 전덕준동무의 당생활을 통해서도 찾아보게 된다.

지난 9월 중순 어느날 전덕준동무의 방으로 찾아온 공당신동작업반 통제원 박옥희동무는 높은 보타리를 책상우에 올려놓고 급히 물어내었다.

보자기에는 윤기도는 발달들과 갈갈들이 수북이 들어있었다.

《부끄러우게 말했다.》

《우리가 심는 나무들에서 만 첫 열매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순간 전덕준동무는 저도모르게 오른손을 인종굴리기로 가져갔다. 당원들이 손굴에 당으며 가슴이 찌릿해졌다.

그에게는 어려운 때나 기쁨 때나 가슴에 품은 당원증을 만져보는 습관이 있었다. 근 40년간 당생활을 하는 과정에 생겨난 습관이었다.

어렵고 힘들 때 당원증을 만져 보면 힘과 용기가 솟구치고 기쁨 때 만져보면 조선로동당의 긍지와 자부심이 온몸에

어제 날의 련대장은 오늘도 정보로 걸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당원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칠것을 결심하고 짓건하야 당에 들어오는 자각적인 혁명투사들입니다.》

오늘 우리 당원들은 드넓은 자국을 안고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을 힘차게 벌려나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어제날의 인민군대 련대장이었던 봉화화공장 부지배인 전덕준동무의 당생활을 통해서도 찾아보게 된다.

지난 9월 중순 어느날 전덕준동무의 방으로 찾아온 공당신동작업반 통제원 박옥희동무는 높은 보타리를 책상우에 올려놓고 급히 물어내었다.

보자기에는 윤기도는 발달들과 갈갈들이 수북이 들어있었다.

《부끄러우게 말했다.》

《우리가 심는 나무들에서 만 첫 열매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순간 전덕준동무는 저도모르게 오른손을 인종굴리기로 가져갔다. 당원들이 손굴에 당으며 가슴이 찌릿해졌다.

그에게는 어려운 때나 기쁨 때나 가슴에 품은 당원증을 만져보는 습관이 있었다. 근 40년간 당생활을 하는 과정에 생겨난 습관이었다.

어렵고 힘들 때 당원증을 만져 보면 힘과 용기가 솟구치고 기쁨 때 만져보면 조선로동당의 긍지와 자부심이 온몸에

어제 날의 련대장은 오늘도 정보로 걸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당원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칠것을 결심하고 짓건하야 당에 들어오는 자각적인 혁명투사들입니다.》

오늘 우리 당원들은 드넓은 자국을 안고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을 힘차게 벌려나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어제날의 인민군대 련대장이었던 봉화화공장 부지배인 전덕준동무의 당생활을 통해서도 찾아보게 된다.

지난 9월 중순 어느날 전덕준동무의 방으로 찾아온 공당신동작업반 통제원 박옥희동무는 높은 보타리를 책상우에 올려놓고 급히 물어내었다.

보자기에는 윤기도는 발달들과 갈갈들이 수북이 들어있었다.

《부끄러우게 말했다.》

《우리가 심는 나무들에서 만 첫 열매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순간 전덕준동무는 저도모르게 오른손을 인종굴리기로 가져갔다. 당원들이 손굴에 당으며 가슴이 찌릿해졌다.

그에게는 어려운 때나 기쁨 때나 가슴에 품은 당원증을 만져보는 습관이 있었다. 근 40년간 당생활을 하는 과정에 생겨난 습관이었다.

어렵고 힘들 때 당원증을 만져 보면 힘과 용기가 솟구치고 기쁨 때 만져보면 조선로동당의 긍지와 자부심이 온몸에

